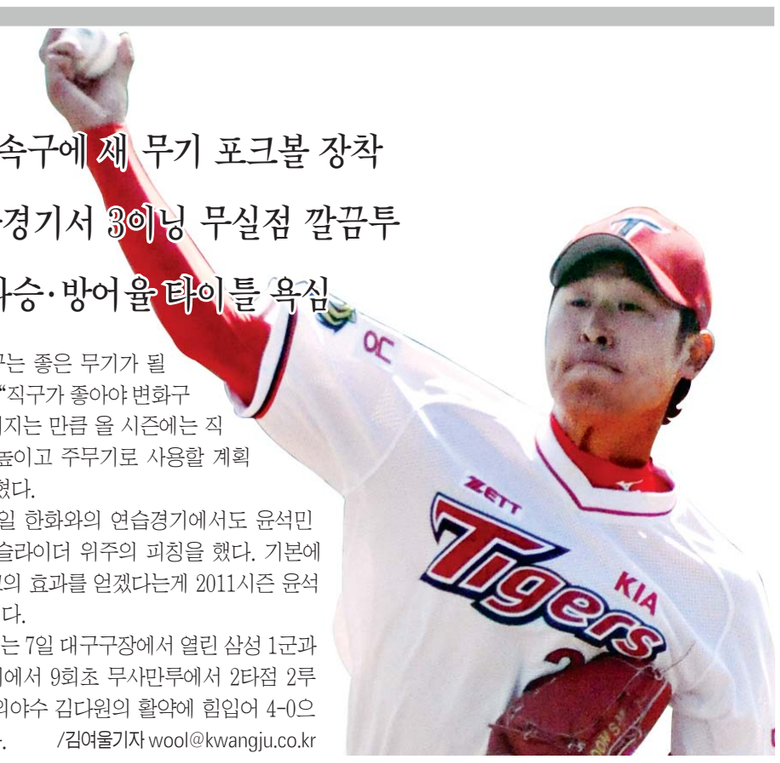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윤석민 'KIA V11' 선봉장 되겠다

150㎞ 강속구에 새 무기 포크볼 장착
한화 연습경기서 3이닝 무실점 깔끔투
올 시즌 다승·방어율 타이틀 욕심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7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2군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스프링캠프 이후 첫 실전피칭에 나섰다.

3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윤석민은 총 42개의 공을 던지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2루타를 하나 허용하기는 했지만 2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등 깔끔한 피칭을 선보였다.

윤석민은 "100% 만족스러운 피칭은 아니지만 힘을 빼고 편하게 공을 던졌다. 실전감각도 익고 시즌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목표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했던 윤석민은 올 시즌을 앞두고는 '최고의 한해'를 외치며 예전과 다른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다승왕·방어율왕에 대한 욕심까지 내비치고 있다. 그만큼 올 시즌 준비가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윤석민은 지난해 프로답지 못한 모습으로 손가락 부상을 당하는 등 힘겨운 시즌을 보냈지만 광저우아시안게임을 거치며 자신감도 재충전했고 캠프를 통해 몸 준비도 완벽하게 끝냈다.

새 구종 연마도 진행되고 있다.

윤석민은 150㎞가 넘는 강속구에 고속 슬라이더와 명품 체인지업으로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우완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손재주'가 뛰어나 매년 새로운 구종을 장착하는 팔색조로도 정평 나있다.

기존 구종에 자신만의 공 쥐는 법을 연구해 '윤석민 그립'으로 승부를 해왔던 윤석민은 올 시즌에도 신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윤석민은 광저우 아시안게임때 두산 임태훈으로부터 포크볼에 대한 비법을 배운 뒤 지난 캠프에서 이를 시험했었다. '제구는 만족, 궤적은 불만족'이 윤석민의 평가다. 타자들을 유인할 만한 각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그립 연구에 들어간 윤석민은 검지·중지를 벌려 잡는 포크볼이 아닌 약지까지 이용한 포크볼을 준비하고 있다. 공 움직임은 눈에 띄게 향상됐지만 완벽하게 손에 익은 것은 아니라서 어떤 포크볼을 어떤 시점에 던질지는 미확정이다.

새로운 구종이 더해진다면 윤석민을 상대하는 타자들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타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석민은 "구종이 많아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지만 다양한 변화구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직구가 좋아야 변화구 위력도 더해지는 만큼 올 시즌에는 직구 비율도 높이고 주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7일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도 윤석민은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했다. 기본에 충실해 최고의 효과를 얻겠다는게 2011시즌 윤석민의 전략이다.

한편 KIA는 7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1군과의 연습경기에서 9회초 무사만루에서 2타점 2루타를 날린 외야수 김다원의 활약에 힘입어 4-0으로 승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10월 24일 영암 서킷에서 열린 F1자동차 대회 '2011 코리아 그랑프리' 결선에서 F1머신들이 비가 내려 미끄러운 경주로를 질주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F1 레이스에 '인공 비' 뿌린다?

에클레스톤 FOM 회장 "흥미 진진한 게임 위해" 제안
드라이버 마크 웨버 "F1과 역사를 조롱하는 것" 반기
올 10월 영암 코리아그랑프리 적용 여부 관심

지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들의 경주인 F1레이스에 인공 비 논란이 한창이다.

'F1의 대부' 버니 에클레스톤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 회장(81)이 지난 몇 년 동안 최고로 흥미진진했던 F1 자동차 레이스에 매번 비가 내렸다는 이유를 들어, 진행되고 있는 레이스 도중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트랙을 적셔 흥을 돋우자는 제안을 하면서다. 에클레스톤의 인공 '웨트 레이스'(Wet Race)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공 웨트 레이스는 세계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F1자동차 경주대회를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흥행으로 몰고가면서, 드라이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비난 또한 거세다.

에클레스톤은 지난 1일 F1공식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익사이팅(exciting)했던 레이스에는 매번 비가 내렸다"며 "몇몇 트랙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인공적으로 젖은 노면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20분이나 10바퀴 정도를 경주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F1 관계자들은 '피식' 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피렐리 모터스포츠의 디렉터 폴 햄버리는 "야간에 조명을 켜고 레이스를 하는 것을 두고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거셌다"며 "인공 웨트 레이스가 그리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하고 나섰다.

전 F1드라이버 존 왓슨도 "팬들은 익사이팅한 레이스에서 드라이버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고 에클레스톤의 상상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베테랑 드라이버 마크 웨버(35·레드불 레이싱·호주)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에클레스톤의 제안은) F1과 그 역사를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만약 스프링클러와 호스로 경주로를 적신다면, 비의 제왕으로 불렸던 지마 클라크나 아일톤 세나 같은 (전설적인) 드라이버들까지도 무덤에서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마크 웨버는 지난해 10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영암 코리아그랑프리 결선에서 18바퀴까지 1위를 달리다가, 19바퀴 13번째 코너에서 중심을 잃고 벽을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니코 로즈버그(26·메르세데스·독일)와 충돌해 레이스를 포기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 GP의 닉프라이는 "인공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은 F1의 본질과 동떨어진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더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용은 아쉬운 준우승

혼다클래식 막판 추격전 불구 1타 뒤져

'바람의 아들' 양용은(39)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총상금 570만 달러) 마지막 날에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지만 1타가 모자라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이 대회 챔피언인 양용은은 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 PGA 내셔널골프장 챔피언스코스(파70·71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몰아쳐 4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8언더파 272타가 된 양용은은 9언더파 271타로 우승을 차지한 로리 사바티니(남아공)에 1타 뒤진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사바티니의 우승 상금은 100만8000 달러다.

준우승 상금으로 61만5600달러를 받은 양용은은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106만8396달러)하며 상금 순위 33위에서 12위로 껑충 뛰었다.

3라운드까지 사바티니에 5타나 뒤진 가운데 챔피언조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양용은은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추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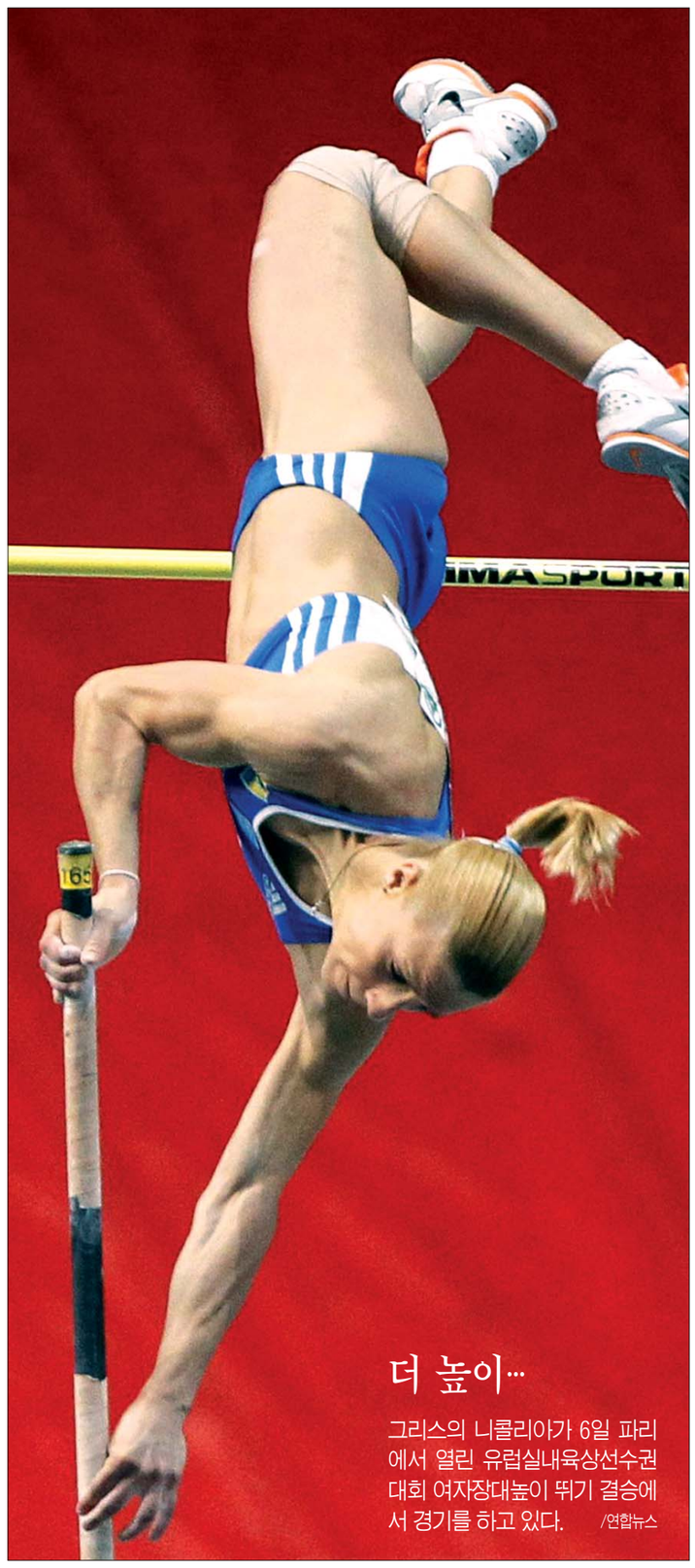
3번 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한 양용은은 이후 6번, 13번 홀(이상 파4)에서 버디를 낚으며 사바티니를 3타 차이로 따라붙었다.

게다가 사바티니가 14번 홀(파4)에서 1타를 잃고 양용은은 이어진 15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자 급기야 둘의 간격은 1타 차로 줄어들었다.

양용은은 15번 홀에서 공을 50㎝ 안쪽으로 붙이는 홀인원 성 티샷을 날리며 버디를 잡아 역전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사바티니가 16번 홀(파4)에서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으며 다시 2타 차로 달아나 추격에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이 대회와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양용은이 PGA 투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3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양용은은 올해 출전한 5개 대회 가운데 세 차례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09년 5월 HP 바이런넬슨 챔피언십 이후 1년10개월 만에 PGA 투어에서 우승한 사바티니는 통산 6승째를 거뒀다. /연합뉴스



더 높이…

그리스의 니콜리아가 6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실내육상선수권대회 여자장대높이 뛰기 결승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Ecole du Vin
'에꼴 뒤 뱅 입문과정 : 6기 수강생 모집'
Wine partner 와인파트너 winepartner.co.kr
http://cafe.naver.com/winepartner
금수장관광호텔

'광주 와인 문화 일번지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진행하는 와인 스쿨 '에꼴 뒤 뱅'의 입문 과정이 오는 3월 8일(화)에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소 와인을 배우기 희망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강좌를 통해 와인이 주는 큰 행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와인파트너 홈페이지(www.winepartner.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에꼴 뒤 뱅의 와인 입문반 강좌는 와인 초보자들을 위한 초급 와인 강좌입니다.
- 강좌 신청은 와인파트너 홈페이지(www.winepartner.co.kr)에서 신청폼을 작성하신 후 입금계좌로 회비를 입금을 하셔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 강좌 신청은 '입금선착순'으로 정원이 채워지면 자동 마감됩니다. 마감 후 입금하신 분들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일시 : 2011년 3월 8일(화) 부터 총 4회 ; 화요일 오후 7시 50분-10시
장소 : 금수장관광호텔 (계림동, 062-525-21111, www.geumsoojang.com)
*사정에 따라 강좌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원 : 선착순 18명 / 강의비 : 20만원 문 의 : 금수장관광호텔 062-525-2111

강사 : 권 홍 식
- 금수장관광호텔 전무 / 소믈리에
- 한국소믈리에협회 운영위원
- 한국소믈리에학회 상임이사 (소믈리에 자격시험 검증 위원)
- IBWE(인터내셔널 보르도 와인 에듀케이터) 인증 와인 강사